“코로나시대 공존의 삶 중요성 새삼 느껴”

'코로나리포트' 신문 발행 호남대 신방과 학생들

축소된 일상 다양한 사회모습 담아
택배노동자·환경문제 등 다각도 취재
3천부 제작 배포…“배려하는 삶 필요”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코로나 리포트' 신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호남대제공〉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지도교수 조경완) 학생들이 전공교과목 신문제작실습의 결과물로 8쪽 분량의 신문 '코로나리포트' 3000부를 제작, 광주지역 일간지 구독 세대 일부에 무료 배포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생활 주변의 일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뉴노멀로 자리잡은 사회 곳곳의 다양한 현장의 변화를 기사와 사진에 담았다.

신문 1면 머릿기사로 '축소된 일상 맑아진 대기, 불편 속에 깨달은 공존의 삶'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코로나 국면 속에 상대적으로 좋아진 대기질 등 환경 복원, 그동안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돼 온 환경파괴에 대한 시민들의 자성을 '코로나의 역설'이라 부를 수 있는 긍정적 측면으로 분석했다.

3면에는 온라인쇼핑, 재택근무, 화상면접 등 언택트시대를 상징하는 수많은 변화들을 분야별로 다뤘으며, 폭증하는 물량에 쓰러져가는 택배노동자 문제(4면), 교사의 마스크 착용으로 표정전달이 안돼 발생하는 영유아 인지교육 문제(5면), AR, XR 기술로 현장감 부족 문제를 극복해가는 온라인 문화예술공연 현황(6면)과 코로나 위생수칙을 지켜가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스포츠현장(7면)도 다각도로 취재했다.

전국 이슈가 된 기본소득문제, 언택트시대의 반려동물 인구 증가, 노인시설의 살얼음판 같은 하루, 급증하는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 등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신문제작에 참여한 3학년 조나영씨는 “취재를 통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환경보존의 경각심을 절실히 느꼈으며, 밀집된 도시생활에서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배려하며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은 지난 1학기에도 코로나시대 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은 잡지 '코로나 전사들'을 발행하기도 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광양제철소, 사랑의 쌀 전달

전남드래곤즈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함께 9일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사진〉

이번에 전달한 쌀은 '감사나눔 희망골'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전남은 2012년부터 홈경기 시 골을 넣을 때마다 광양제철소와 각각 쌀 100kg를 적립하고 있다.

올 시즌에는 홈에서 17골이 기록되면서 총 3400kg의 쌀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전달한 쌀은 4만1200kg으로 쌀 20kg기준 2060포대다.

이번에 기탁된 쌀은 사랑나눔복지재단의 배분위원회를 거쳐 저소득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전남드래곤즈 조청명 사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드래곤즈를 응원해주신 지역민들께 감사드린다. 한 해동안 선수들이 노력하여 얻은 사랑의 쌀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후원을 하게 되어 기쁘다. 내년에는 더 많은 쌀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께서 구단과 선수들을 위해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NC 박석민, 2020 사랑의 골든글러브 수상자 선정

5년간 8억원 기부 등

NC 박석민이 2020 사랑의 골든글러브 수상자로 선정됐다.

KBO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시상하는 사랑의 골든글러브는 선행에 앞장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KBO 리그 선수 또는 구단에 수여되는 상으로 지난 1999년 처음 제정됐다.

박석민은 NC로 이적한 2016년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야구를 하는 후배들과 힘든 상황에 있는 이웃들에게 5년간 총 8억여원을 기부하며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박석민은 율하초, 대구고 등 모교와 영남대, 구단 연고지역 초·중·고교, 유소년 야구재단에 6억여원을 후원했다. 또 양산 밧줄 추락사 유가족 지원금과 강원도 산불 성금 등으로 2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지역을 위해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3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KBO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2020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앞서 박석민에 대한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서부발전, 공정·공감감사 구현 위한 책자 발간

한국서부발전 감사실은 최근 감사실 책자 '공정에 공감을 더하다'를 발간해 임직원과 외부 관계기관 등에 배포했다. 〈사진〉

해당 책자에는 공공기관의 의미와 역할을 비롯해 한국서부발전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감사활동의 임무와 목표가 담겨있다.

또 안전사고 이후 안전경영체제로의 재편 노력, 부패·비위 척결 및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심변호사제도', 올바른 국어사용·보전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국어감사관 제도' 등도 소개하고 있다.

최향동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의 방향과 가치를 적극 소통하여 공감을 이끌어낼 때 감사활동의 의미와 성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보, 취약계층에 성금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정섭·사진) 임직원들은 9일 사회적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400만원을 기부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광주 '성심의 집'과 '천사무료급식소'에 기부됐다.

광주신보는 올해 들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5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전달했다. /백희준 기자 bhj@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나를 사랑한 스파이(재)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5 팔도밥상 스페셜 55 UHD 숨터	00 바람피면 죽는다(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00 12 MBC 뉴스 15 생방송 연금복권 720+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날아라 개천용(재)
1	00 TV쇼 진품명품(재)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명탐정 핑크퐁과 호기 45 린다의 신기한 여행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꽉 잡아 30 열린채널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잠깐! 쉬운말 어때요? 25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분 좋은 날(재)	00 톡톡 보험설계(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00 또봇V 2 15 캐치! 티니핑 30 놓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다큐플렉스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맨 인 블랙박스(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30 남도애 가요 다시보기
7	00 뉴스7 광주전남 35 대한민국 탄소 중립 선언 50 한국인의 밥상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30 대한민국 탄소 중립 선언 50 MBC 뉴스데스크	30 SBS 뉴스특보 대한민국 탄소 중립 선언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펫 비타민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바람피면 죽는다	20 나를 사랑한 스파이	00 맛남의 광장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40 KBS 드라마 스페셜 2020 〈도둑잠〉	40 UHD특집 다큐멘터리 건축의 시간	35 펜트하우스(재)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글로벌 파워 뮤지션발굴 프로젝트 ASIAN TOPBAND	5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10 코로나19 극복 집콕 특집영화 -럭키	15 코로나19 극복 집콕 특집다큐 -할미넴(재)	40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추적 몬스터	20 나이트라인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EBS1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띠띠뽀 띠띠뽀
07:15 로보카 폴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마법버스 타요
08:45 뭐든지 뮤직박스
09:00 레인보우 루비
09:15 또깨비 가족
09:30 몰랑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2:25 넥스트 히어로
12:30 클래스 e
13:00 명의
13:55 EBS 스페이스 공감
14:45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15:45 레인보우 루비
16: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6: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16:30 딩동댕 유치원(재)
16:50 해요와 해요
17:00 EBS 뉴스
17:20 형사 가제트
17:45 최고다! 호기심 딱지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19:00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9:30 자이언트 펭TV
19:45 다큐 잇it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당신이 꿈꾸던 아프리카
-지중해의 푸른 전설, 튀니지〉
21:30 한국기행
〈찬바람이 불면 4부
구인사 김장하는 날〉
21:50 파란만장
22:45 한국에 산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0일(음 10월 26일 丁亥)

☎ 010-9790-8237

子 36년생 흥왕의 기운이 넘치니 즐거운 일이 겹칠 수 있다. 48년생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긴다. 60년생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절실히 요구된다. 72년생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대처하라. 84년생 기대치와 동떨어져 있어서 결과에 허무할 수도 있다. 96년생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타협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5, 99

丑 37년생 의견을 개진하다보면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49년생 직접 처리했을 때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61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가 조성 되겠다. 73년생 참고 기다린다면 늦게나마 취할 수 있겠다. 85년생 강도와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형세이다. 97년생 거시적 관점의 실행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34, 57

寅 38년생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0년생 많고 적고 간에 지금은 다 모아야 할 때다. 62년생 기대하여 왔던 이가 실망을 줄 수 있다. 74년생 상식에 근거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86년생 관리와 확인이 절실하다. 98년생 실속이 없다면 미련 갖지 말고 버려라. 행운의 숫자 : 32, 87

卯 39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차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51년생 평생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천재일우의 찬스가 될 수 있다. 63년생 사소함에서 비롯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75년생 이대로라면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87년생 금권의 위력 앞에서 휘청거리는 형편이다. 99년생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맹점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6, 58

辰 40년생 실익을 우선시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52년생 발전적인 충돌 양상을 띠고 있으니 번거로움은 감수하자. 64년생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76년생 내심을 드러낼 필요는 없으니 알고만 있으면 된다. 88년생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별로다. 00년생 의심스러운 점은 꼭 문의해 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3, 55

巳 41년생 현장 감각이 절실히 요구 되는 상황이니 실무에 능해야 한다. 53년생 이치에 부합하고 있는 지 따져보아야 한다. 65년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순조로움을 이끌 것이다. 77년생 변경시킨다면 상대로부터 의혹을 살 수 있다. 89년생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당분간 함께 하자. 01년생 획일적이라면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37, 90

午 42년생 시종일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절대로 무리하지 말자. 54년생 내면적 실정에 충실함이 이익이다. 66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 법이다. 78년생 우선순위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맞다. 90년생 길경의 물결이 남실대고 있으니 곧 좋은 일이 있으리라. 02년생 전환점을 맞이할 갈림길에 서 있다. 행운의 숫자 : 03, 68

未 31년생 표준이 될 만한 전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43년생 마음껏 기량을 발휘해도 좋을 때다. 55년생 지금은 힘들더라도 점점 수월해질 것이니 진중하게 진행하자. 67년생 정도를 걸으면 봄날이로다. 79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91년생 마음을 비우고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29, 76

申 32년생 뒤집혀서 오히려 반대로 갈 수다. 44년생 만 가지 일이 뜻과 같이 되는 순조로움이 보인다. 56년생 행운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는 마당이다. 68년생 애초에 마음먹었던 대로 행한다면 하자가 없을 것이다. 80년생 중요한 일이므로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92년생 형식적인 절차는 사족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5, 62

酉 33년생 가능하다면 대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 45년생 기왕이면 겉모습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7년생 기법에 신경 쓴다면 금상첨화이다. 69년생 상호 관련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다. 81년생 제대로 값어치를 하게 될 것이다. 93년생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므로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17, 77

戌 34년생 순응하는 자세가 가장 무난하다. 46년생 여건을 발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58년생 아니 되는 것을 강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70년생 하나하나 따져보고 택해야만 후회하지 않는다. 82년생 여러 가지가 올 것이니 예리한 시각과 유연한 수용 능력으로 대처하자. 94년생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자. 행운의 숫자 : 36, 92

亥 35년생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가 되었다. 47년생 짜임새 있게 관리해야 할 판국이니라. 59년생 한 번 시작 된다면 실타래 풀리듯 할 것이다. 71년생 만사형통하는 기운이 보인다. 83년생 조처 하자마자 절실히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95년생 승산의 여지는 충분하니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는 말라. 행운의 숫자 : 09, 63